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4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7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4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군, 경찰, 소방, 해경, 유관기관 등의 기관단체장 17명의 위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와 2024년 통합방위 운영계획 및군부대 운영계획 등 부안군 통합방위 태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각 기관별 통합방위 업무추진 상황을 협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군민들의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11회 부안마실축제 미실스냅 참가자 모집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부안마실축제의 사전홍보 프로그램인 '미실 스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가족(3인 이상), 친구(2인 이상) 또는 커플이며 선정된 대상에게는 부안마실축제가 개최되는 부안읍의 다양한 사진명소에서 전문 사진작가의 무료 스냅촬영 기회를 제공한다.

촬영된 스냅사진 중 일부는 부안마실축제 홍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선정된 참가자들은 SNS에 1건 이상 후기를 게시해야 한다. 미실 스냅은 4월 11~12일 양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하루 2팀씩 촬영을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특별한 사연과 함께 온라인 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오는 4월 8일 개별로 발표한다.

참가 신청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부안마실축제 사무국 ☎(063-584-9953)으로 문의하거나 부안마실축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건강지킴이, 보건진료소 헌신에 감사”

심덕섭 고창군수, 24명 보건진료소장과의 간담회

심덕섭 고창군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고창 농어촌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진료소장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6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와 고창군 24명의 보건진료소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진료소장들의 헌신과 봉사에 노고를 격려하고, 미담사례 등을 공유하며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향해 함께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각 보건진료소는 매일 오전에는 진료·약처방 등 환자 진료를 보고 요일별로 오후에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



지난 26일 심덕섭 고창군수와 고창군 24명의 보건진료소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진료소장들의 헌신과 봉사에 노고를 격려하고, 미담사례 등을 공유하며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향해 함께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진은 심덕섭 군수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매·고혈압·당뇨 교육을 진행한다. 또 직접 방문해 이쁜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하면서도 틈틈이 찾아오는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있다.

또한 ‘고창군의 3대 어르신 보건의료 사업(우리마을 주치의사제,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추진에도 함께하고 있다.

고창군은 보건진료소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4개소를 추진했고, 올해에도 3개소를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장비 구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실무 역량 강화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어촌 지역 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건강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보건진료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현황에 맞는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에도 관심갖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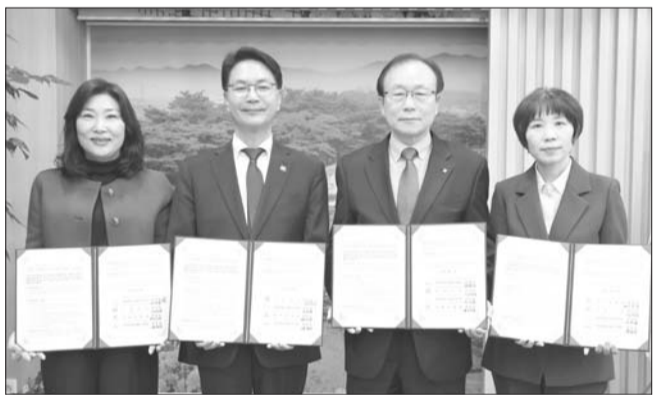
고창 소상공인용자지원 5000만원 한도 확대

고창군-전북신보-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전북은행 업무협약

고창군이 올해부터 소상공인용자지원 5,000만원 한도로 확대해 지역상인들의 원활한 자금유통을 돕는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심덕섭 고창군수와 한중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미정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이 ‘소상공인 용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고창군은 소상공인용자지원 사업으로 현재 3,000만원까지 대출시 5%의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는 전



27일 심덕섭 고창군수와 한중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미정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이 ‘소상공인 용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북특별자치도 14개 지자체중 가장높은 이자를 지원사업이다.

이에 더해 이번협약으로 올해부터 5,000만원까지 용자시 3%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소기업·소상공인(희망더드림)용자지원 사업’을 추가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선택(중복지원 안됨)하여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고창군은 이차보전금(이자)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이 전북신보와 함께 신용보증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기관들은 소기업·소상공인 용자지원(희망더드림)을 위한 특례보증지원 및 지역 성장을 위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용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어 지역경제가 활력이 넘치길 기대한다며, 향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28-31일 쌍화차거리·내장산 등 주요 관광지 집중 홍보

정읍시가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지역관광자원 홍보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2024 내나라 여행 박람회’는 200개 기관이 참여해 440개 부스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 박람회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고창·부안과 공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쌍화차 거리·구절초 지방정원·내장산 등 지역 대표 관광지와 벚꽃축제, 정읍 맛집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 여행객 유치를 위해 포토존을 운영하고 서울포드·핀볼 게임 이벤트와 정읍시 공식 SNS 팔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 내나라 여행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정읍의 매력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읍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앞장

‘바가지요금신고센터’ 운영

고창군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벚꽃축제부터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만들기에 나선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김철태 고창부군수를 단장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꾸리고 벚꽃축제 기간(29~31일) 바가지요금신고운영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에서는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격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먹거리 가격표’ 게시가 한층 강화된다. 축제장 메인출입구, 각 판매부스 외부 등에 표시되고 상인들의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

정읍시는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맞아 동학농민혁명 계승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동학농민혁명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연구·문화 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상한다.

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관·단체장, 전국 각 지자체장·학교장, 관내 실과소장·읍면동장, 사학자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한민국 국민(단체)이라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패가 수여된다.

후보자 접수는 오는 4월 5일까지 동학문화재단(☎063-539-6922)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화수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지난해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세계 역사로 인정받아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자유, 평등, 인권의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는 단체나 개인을 수상자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